

지면안내

02
보도

만족 응답률이 더 높았으나, 소통·부정행위·기술적 문제 등 불만 나와

03
사회

코로나19 칼바람, 청년에게 더 가혹했다

05
학술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08
문화

코로나19 등장에, 온라인 게임도 두둥등장!



다시 시작된 거리두기

▲이태원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으로, 지난 27일부터 진행됐던 일부 실습 과목의 대면 강의를 13일 12시를 기점으로 모두 취소됐다. 대학본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인원이 20명 이내일 경우에만 제한적 대면 강의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취소된 기간에 대한 보강은 6월 26일 종강 후 2주간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성훈 기자 csh8947@hanmail.net

본교 온라인 중간고사 첫 시행, 만족도 조사 결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학내 확산 우려로, 지난 4일부터 전면 온라인 중간고사가 시행됐다. 시행 전, 학생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학생과 교수 간 원활하지 않은 소통 ▲부정행위 ▲e-class의 불안정성 등이 온라인 중간고사의 문제로 우려됐다.

본지는 온라인 중간고사를 점검해보고자,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본교 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온라인 중간고사

만족도 조사를 시행했다. 설문 결과, 학생과 교수 모두 불만족보다 만족에 더 많은 응답을 보였다.

대학본부는 "사상 최초로 온라인 중간고사가 시행돼 많은 이들이 혼란과 불편을 느꼈을 것"이라며 "기말고사에서는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2면에 계속
안현경 기자
dksgrud24@naver.com

코로나19로 상반기 대의원총회 모두 불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학년도 상반기 대의원총회가 모두 취소됐다. 대의원 및 상임위원 모집도 모두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예준(사회과학 4) 총대의장은 "대의원총회의 불발로 이번 학기 학생회비 예산 인준은 진행되지 않는다. 모두 2학기로 이월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번 학기에는 모두 열리지 않았다. 당초 정기총회는 본교 학생 회칙(이하 학칙) 제23조(소집)에 의거, 올해 3월과 5월에 진행됐어야 했다.

일반적으로 정기총회는 1차에서 9개 중앙기구별 학생회비 예산 인준을, 2차에서 학칙 개정을 안건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대의원총회가 개최되지 않아 2020학년도 1학기 학생회비 예산 인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장 의장은 "지난 3월, 온라인으로 대의원과 상임위원을 선출해 대의원총회를 진행하려 했다"며 "하지만 온라인 홍보 방식에 한계를 느껴 취소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학생회비 예산 인준 받는 9개의 기구는 모두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장 의장은 "1학기 학생회비 예산 인준은 없을 예정이다. 1학기에 진행되지 않은 행사는 2학기로 이월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남은 총학생회비의 경우 추후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번 학기는 총대의원회가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학생회칙의 문제점을 보완해, 2학기에는 보다 원활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현경 기자
dksgrud24@naver.com

2020학년도 후기 한성대학교 대학원 신입생·편입생 모집

창의적 미래를 설계합니다

학문적 지평을 넓히는 첫걸음!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가 되고, 더 나아가 자신의 분야에서 넓고 깊은 식견을 지닌 지식인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성대학교 대학원에서 창의적인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대학원(주간)

대학원	학위구분	모집계열	모집학과
일반대학원	박사	인문계	한국어문학과 영어영문학과(모집없음) 사학과 문화정보학과
		사회계	경영학과 행정학과 무역학과 경제·부동산학과
		공학계	산업경영공학과 정보컴퓨터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모집없음)
		예·체능계	미디어디자인학과
	석사	학과간 협동과정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한국어문학과
		인문계	사학과 영미문화학과(모집없음) 문화정보학과
		사회계	무역학과 경영학과 행정·도시정책학과 경제학과 국제무역경제학과(영어트랙, 모집없음)
		공학계	산업경영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정보공학과 IT융합공학과
		예·체능계	기계시스템공학과(모집없음) 회화과 의류패션산업학과(모집없음)
		학과간 협동과정	무용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국제이주협력학과

특수대학원(야간)

대학원	학위구분	모집계열	모집학과
경영대학원	석사	사회계	경영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찰행정학과 마케팅학과 민원행정컨설팅학과(모집없음)
예술대학원	석사	예·체능계	뷰티(예술)과 안보전략학과(모집없음)
국방과학대학원	석사	사회계	안보정책학과(모집없음) 국방시스템학과(모집없음)
지식서비스 & 컨설팅대학원	석사	사회계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미래융합컨설팅학과(모집없음)
부동산대학원	석사	사회계	부동산금융·자산관리전공 부동산도시개발·관리전공 한중부동산전공
교육대학원	석사	인문계	교육행정&리더십전공 상담심리전공 유아교육전공

원서접수 및 발표

- 원서접수기간 2020. 5. 18.(월) 10:00 ~ 5. 29.(금) 17:00
- 접수방법 대학원홈페이지 - 입학안내 - 모집요강에서 모집요강 확인 후 우웨이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를 통해 인터넷접수
- 면접전형일 2020. 6. 13.(토) 10:00 면접 시작시간은 학과(전공)에 따라 상이
- 합격자발표 2020. 6. 30.(화) 오후 대학원홈페이지 참고
- 전화문의 02)760-4271 (대학원 교학팀)
- 홈페이지 http://gs.hansung.ac.kr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또는 전화문의 바랍니다.

한성대학교 대학원

(02876) 서울시 상봉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상상관 100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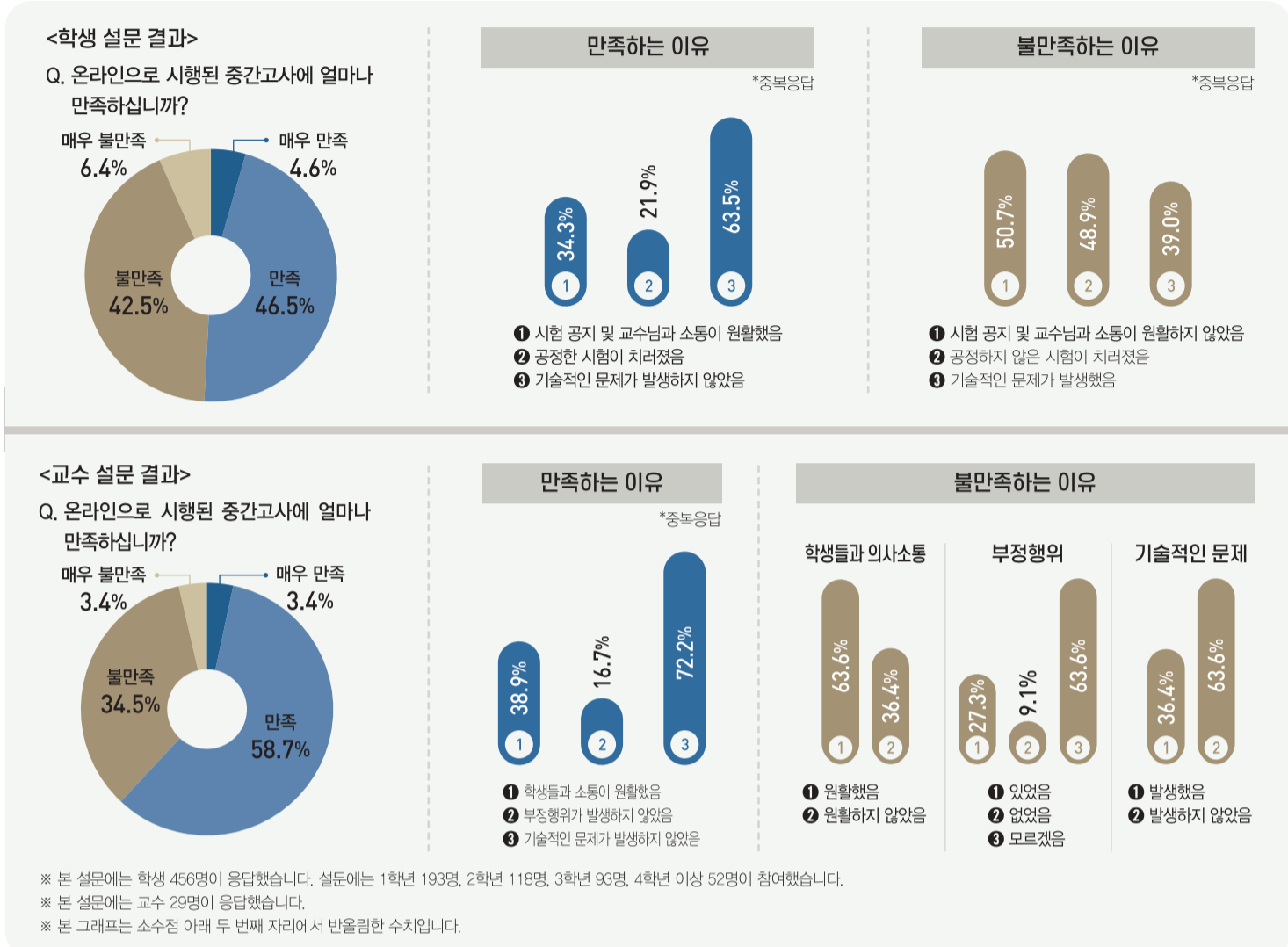
만족 응답률이 더 높았으나, 소통·부정행위·기술적 문제 등 불만 나와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학생 설문에는 재학생 456명이 응답했으며, 1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교수 설문에는 교수 29명이 응답했다. 설문 결과, 온라인 중간고사에 만족·매우 만족에 응답한 학생은 51.1%, 불만족·매우 불만족에 응답한 학생은 48.9%로 나타났다. 교수 설문에서는 62.1%의 교수가 만족·매우 만족에, 37.9%의 교수가 불만족·매우 불만족에 응답했다.

학생, 적절하지 못한 시험 공지에 가장 큰 불만

먼저, 학생은 온라인 중간고사에 만족하는 이유(중복응답) 중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63.5%)'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불만족하는 이유(중복응답)로는 '시험 공지 및 교수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음(50.7%)'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불만족·매우 불만족에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질문한 '시험 공지가 적절했다고 생각하는가'에는 과반의 학생이 '적절하지 않았다(57.0%)'에 응답했다. 그 이유(중복응답)로는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은 채 시험이 공지됐다(74.8%)'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부정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다(54.3%)'가 '그렇다(45.7%)'보다 높은 응답을 보였다. '온라인 중간고사 기간 동안 e-class의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는가'의 질문에는 '발생했다(41.7%)'가 '발생하지 않았다(58.3%)'보다 적게 나타났다. 문제가 발생했다고 답한 학생은



- ▲ 일정 시간대 e-class 접속 장애
- ▲ 서버 끊김 ▲ 출석체크 오류
- ▲ e-class 홈페이지 화면 오류 등을 이유로 꼽았다.

교수, 부정행위 발생하지 않았음에 가장 적은 응답
교수는 온라인 중간고사에 만족

하는 이유(중복응답)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72.2%)'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온라인 중간고사에 불만족한 교수 과반은 '학생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졌는가'라는 질문에 '원활했음(63.6%)'이라고 응답했다. '부정행위를 한 학생이 있었는가'에는

'모르겠음(63.6%)'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부정행위의 종류로는 ▲답안을 베끼 ▲두 명 이상이 함께 시험에 응시할 등이 꼽혔다. '온라인 중간고사 기간 동안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는가'의 질문에는 '발생했음(36.4%)'이 '발생하지 않았음(63.6%)'보다 적게 나타났다.

만족 응답 높아도 체계적인 대책 필요해
이번 설문에서 학생은 개선점(중복응답)으로 ▲시험 공지사항 업로드에 대한 체계적 지침이 필요함(61.2%)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이 필요함(52.2%) 등을 꼽았다. 교수는 ▲부정행위 방지 및

공정성 확보 방안 필요 ▲기말고사는 거리를 두며 대면고사로 진행 등을 개선점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과 교수 모두 온라인 중간고사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조윤철(학사운영팀) 팀장은 "만약 기말고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면 학생과 교수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전에 교수에게 충분한 공지를 할 것"이라며 "기말고사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제한적 대면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재혁(교육혁신원) 팀장은 "현재 본교 e-class 서버를 점검해 봤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특정 시간에 e-class 접속이 안 되는 것은 학생들의 개별 서버 연결 문제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출석체크 오류는 교수가 영상을 다음 주차로 그대로 옮기면서 발생한 문제다. 또한 e-class 홈페이지에 오류가 생기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어서 외부업체에 문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민수(컴공 4) 총학생회장은 이번 온라인 중간고사가 부정행위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 중간고사와 관련한 체계적 커리큘럼이 없어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며 "곧 총장 및 학생처장과 학생 중앙기구장들의 소규모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다. 본부의 체계적인 기말고사 대책 여부를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영경 기자 dksgrud24@naver.com

하계 방중 국제교류프로그램 전면 취소, 2학기 프로그램은 취소 논의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2020학년도 하계 방중 국제교류프로그램이 전면 취소되고, 2학기 해외 파견 프로그램 취소 여부는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본부는 "대체방안을 검토하고 동계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교류협력팀은 당초 하계 방중 프로그램으로 ▲국제봉사단 ▲단기 어학연수 ▲국제어학학교(HISS) ▲글로벌 동행 프로젝트 등을 계획했다. 하지만 ▲파견대학의 온라인 강의 진행 ▲여행 및 입국제한 ▲각국 지역주변에 따른 강제격리로 인한 금전적·물리적 피해 ▲현지 입국시 각국의 감염 상황에 따른 안전의 우려로 전면 취소됐다.

(방문)학생 ▲1+1(영어+전공) ▲학기어학연수 등 해외 파견 프로그램도 상기의 이유로 취소 논의 중이며, 최종 취소 여부는 6월 12일부터 26일 사이에 결정될 예정이다. 김일환(국제교류협력팀) 팀장은 "파견 지역에서 파견을 허용한다고 해도 우리대학 학생에게 피해 예상되는 경우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취소된 학생을 위해 다양한 대체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제교류프로그램 중 하나인 디즈니 프로그램의 일정 취소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해당 프로그램의 참여 예정자들은 올 7월에 파견될 예정이었지만 디즈니랜드가 개장 여부를 밝히지 않아 현재까지 미정인 상태다.

국제교류협력팀은 이번 사태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의 Northeastern Illinois University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해외단기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진행되며, 학점인정 및 출석여부는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제교류협력팀은 하계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동계 프로그램은 지원

자격을 낮춰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파견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파견된 학생들 중 두 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은 귀국한 상태다. 귀국한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남은 연수과정을 마쳤으며, 학점인정 및 성적표 발급은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슬비 기자 selbee01@gmail.com

학술정보관, '제52회 한국도서관상' 수상

지난달 22일, 본교 학술정보관이 '제52회 한국도서관상(이하 한국도서관상)' 단체부분에 선정됐다. 본 상은 도서관 분야 최고 권위상으로, 한국도서관협회가 도서관 사업 발전에 공적을 나타낸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단체부분에서는 전국 1,300여 개 도서관 중 13개 기관이 수상했으며, 서울 소재 대학 도서관 중에는 본교 학술정보관이 유일하다.

본교 학술정보관은 ▲비교과와 연계한 상상독서 프로그램 ▲지역사회에 도서관 자원 개방 ▲창의융합 및 스마트 공간 구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상상독서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에게 인문 및 독서교육을 지원했고 지역주민에게 도서관 자원을 개방해 학습활동의 기회를 부여했다. 학술정보관을 상상커먼스와 러닝커먼스 등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창의융합 학습 공간으로 만들었다.

김귀옥 학술정보관장은 "본교 구성원의 관심과 격려 덕에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했다"며 "학술정보관은 앞으로도 재학생과 지역사회에 '머물고 싶은'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경 기자 mk99119@naver.com

일반대학원, 2021학년도 학석사연계과정생 접수 개시

본교 일반대학원에서 오는 5월 29일까지 2021학년도 학석사연계과정생을 모집한다. 학석사연계과정은 본교 학부생의 학석사 과정을 연계해, 이를 단축시키는 제도다.

학석사연계과정은 조기트랙(학부 7학기+대학원 3학기), 정규트랙 I·II(학부 8학기+대학원 3학기)로 구성돼 있으며, 지원자는 하나의 과정에만 지원할 수 있다. 조기트랙에는 ▲평균평점 3.3 이상 ▲7학기 내 졸업요건과 학과별 추가 자격요건 충족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정규트랙 I의 경우 2020-1학기에 7학기 이수 예정인 자, 정규트랙 II는 6학기 이수 예정인 자가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자는 학부의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부전공과 관련된 학과(전공)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학부 편입생 및 외국인 유학생은 지원 불가하다.

전형권(대학원교학팀) 팀원은 "선발된 학부생은 입학 시 입학금 및 첫 학기 수업료 7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주진술 기자 twoxo@naver.com

K-Move스쿨 일본 IT기업 취업준비과정 교육생 모집

본교 K-Move스쿨사업단에서 오는 6월 5일까지 일본 IT기업 취업준비과정 교육생을 접수 받는다. 'K-Move스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해외취업연수 사업이다. 본교는 지난 3월 해당 사업에 선정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생은 프로젝트 기반의 일본어 교육과 맞춤형 해외취업교육을 제공 받는다.

프로그램에는 만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중 미취업자만 지원 가능하다. 본교 학생의 경우 7·8학기 재학생, 졸업(유예)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만 전액 무료로 교육이 제공된다.

교육생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내달 29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소양교육 및 특강(37시간) ▲어학교육(405시간) ▲기술교육(396시간) ▲프로젝트(282시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권재희(현장실습지원센터) 학술연구원은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의 2단계인 훈련참여지원수당에 해당된다. 교육생은 연계수당과 해외취업 시 별도의 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주진술 기자 twoxo@naver.com

코로나19 칼바람, 청년에게 더 가혹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21년 만에 취업자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고용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 2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만 6천 명이 감소했다. 외환 위기 당시인 1999년 2월 이후 가장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특히 청년층의 피해는 더 컸다. 청년층에 해당하는 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4만 5천 명이 감소한 365만 3천 명을 기록했다. 고용률은 1년 전보다 2.0%p 감소한 40.9%를 기록했다.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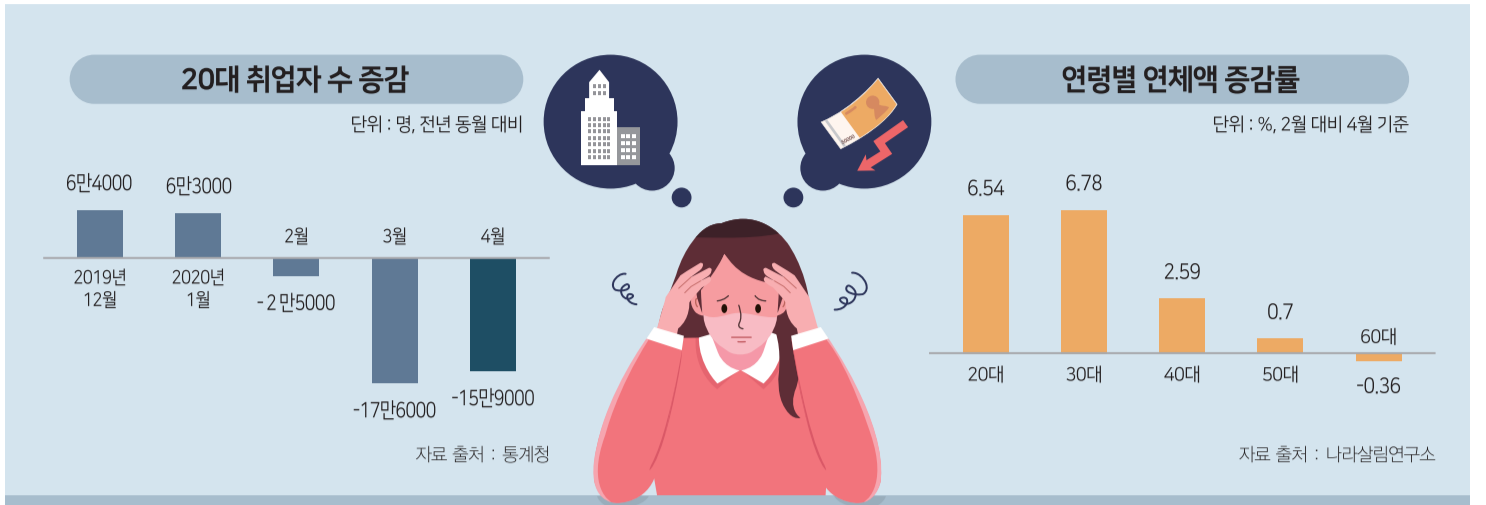
코로나19로 경제가 악화되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 20대 역시 크게 증가했다. 지난달,

구직의사는 있어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1,699만 1천 명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쉬 20대 인구는 42만 6천 명을 기록했다. 작년 동기 대비 11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이것 역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송일호(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나빠지면 노동자가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진학 등 다른 경로를 선택하는 '실망노동자효과'가 발생한다. '쉬었음'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대변한다"고 설명했다.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어 취업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청년층이 구직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청년층의 실업자 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확장실업률은 증가했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9.3%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 4천 명 하락했지만, 확장실업률은 26.6%로 전년 동기 대비 1.4%p 상승해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확장실업률은 추가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까지 반영된 것으로 체감실업률로 해석할 수 있는 지표다.

실상가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자, 경제적 여건이 떨어지는 청년은 생활에 빠지고 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2030세대의



대출·연체액 증가율은 이를 뒷받침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자료를 기반으로 4월 기준 연령별 1인당 대출·연체액 추이를 분석했다. 20대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630만 원으로 전월 대비 2.61% 증가했으며, 30대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594만 원으로 3월 대비 1.23% 증가했다. 연체액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9만 4,450원이던 20대의 1인당 연체액은 4월에 이르러 10만 6,300원으로 6.54% 늘었다. 30대는 2월 52만 3,700원에서 4월에는 55만 5,640원으로 6.78% 급증했다. 전체 평균 연체액 증가율은 3.15%였다.

김정호(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쌓아둔 자산이 적은 편이다. 옆친 데 맞춘 격으로 고용여건도 좋지 않아 급격한 소득 감소를 경험하는 것"이라며 "가족의 경제적 여력에 따라서 청년층 내에서 소득 격차가 크게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고용절벽 현상이 지속된다면 청년의 인적자본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취업 시기가 1년 늦어지면 이후 10년 동안 임금이 4~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50여 년 간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가 급속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청년층의 장기 소득 감소는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 교수는 "20

대를 위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장년층 대상이었던 공공부문 일자리를 청년층까지 확대해 공급할 전망이다. 여기에는 ▲공공일자리 94만 5천 개 ▲직접 일자리 55만 개 ▲공무원·공공기관 4만 8천 개 ▲공무원 기채용 1만 9천 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정부는 청년을 채용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6개월 간 보조금을 매달 지원키로 했다.

김 교수는 "민간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고용정책이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비판도 있다. 송 교수는 "정부의 고용정책이 임시직이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당부다. 김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수준 차이를 줄이는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희연 기자
heeyun96@naver.com



강사법 시행 2년, 벼랑 위의 강사들

2010년 5월, 한 남자가 유서를 적고 있다. 그는 조선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었던 서정민 박사. '저는 스트레스성 자살입니다.' 목숨을 끊기 직전, 서 박사는 유서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그의 죽음을 발단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은 국회의 문을 넘었고, 2019년 8월에 시행됐다. 강사법은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 부여 ▲1년 이상의 임용 ▲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강사법은 강사를 교원으로서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우대되도록 예우하고, 신분에 영향을 주는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보호하며, 강사가 처우개선을 위해 교섭·협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강사법 시행 이후에도 강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강사의 일자리 감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도(미래통합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학기에 5만 1,448명이었던 국내 일반 대학의 전체 강사 수는 2019년 2학기에 3만 5,565명으로 급감했다. 대학이 강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강사 숫자 자체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이도훈(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사립대학에 평균적으로 강사가 절반 가량 줄어들었고 정규직 전임교원은 거의 늘지 않았다. 대학은 줄어든

강사의 자리를 겸임·초빙교수 등으로 대체하고, 대우·특임·객원교수 등 20종이 넘는 기타 교원을 만들어 강사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사 숫자가 줄어들며 따라 소규모 강좌의 수도 줄어들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시한 '2020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생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는 2018년 1학기에 38%였으나, 2019년 1학기에는 35.9%로 감소했다. 이 대표는 "대학은 2019년 1학기에만 7천여 개의 강좌를 없앴다.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대형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늘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증가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정년을 보장받는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달리,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다. 강사들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전임교원 중 일부가 정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자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는 "대학원생에서 강사를 거쳐 교수나 직업 연구원으로 나아가는 대학의 학문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대학이 전임교원 확보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수를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시킨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반성택(서경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

교원에 비해 절반 이하의 연봉을 받지만, 교육부의 평가에서는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똑같은 전임교원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 구조개혁 평가 시기를 넘기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서 박사가 목숨을 끊은 지 10년, 강사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대학의 수업을 책임지는 강사는 줄어든 일자리와 불안한 미래 사이에서 근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강사를 줄이는 것은 대학의 미래를 지우는 자해행위다. 각 대학이 다른 부문에서 비용을 절약하면서 강사 고용을 유지하고 적절한 강사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기자가 읽어주는 경제 TALK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규제완화인가? 특혜인가?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제정된 법이다. 해당 법은 비금융산업의 회사가 은행의 지분을 4%까지만 소유할 수 있게 한 은산분리의 원칙을 최대 34%까지 완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조건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기존 법안의 제5조 별표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조건을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정거래법

상의 특정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대주주가 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의 등장 배경에는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있다. 케이뱅크는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자금난으로 대출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케이뱅크 설립을 주도했던 KT는 케이뱅크의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34%까지 늘리려고 했다. 그러나 KT가 공정거래법상 담합혐의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

케이뱅크는 정치권에 법안의 개정을 요청했지만, 지난 3월 공정거래법 위반 조건을 제거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후 부결됐다. 이후 KT는 자회사인 BC카드에 케이뱅크의 지분을 팔아, BC카드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전략을 취했다.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돼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학계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서지용(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개정안은 경쟁력 있는 ICT 플랫폼 업체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입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따라서 양질의 금융 서비스와 거래비용 최소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은산분리의 약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상민(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미 KT가 BC카드를 통해 지분을 출자*시키려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었다"며 "이는 은산분리를 더욱 약화시켜, 이후 재벌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게 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권의 혁신을 촉발할 메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과연 이번 개정안이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메기를 더 키워낼지, 아니면 그 메기의 배를 가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된다.

*유상증자 : 주식을 신규로 더 발행해서 돈을 받고 팔아 자본금을 늘리는 것
*출자 : 어떤 사업을 위해 자금을 내는 행위나 그 자금 자체

최성훈 기자
csh8947@hanmail.net



“저의 목표는 회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업드림코리아 이지웅 대표

‘기업가’란 영리를 목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기업이 존속하여 자신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기업가의 역할이다. 그런데 자신의 회사가 없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는 특이한 기업가가 있다. 사회적 기업 ‘업드림코리아(UPDREAMKOREA)’의 이지웅(32) 대표다.

세상을 보고 찾은 길

업드림코리아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건을 기획·제조하는 커머스(Commerce) 기반 회사다. 이 대표가 업드림코리아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특별하다. 창업 스토리는 그의 대학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대학시절에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고민에 빠졌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계여행을

한 그는 마지막 목적지였던 인도에서 그의 인생을 바꾼 광경을 보게 된다.

“인도의 빈민촌에서 쓰레기를 줍는 아이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인데 저 아이들은 왜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에 의문이 들었죠.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간자의 역할을 한다면,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불평등을 보고 자신의 길을 찾은 이 대표는 본격적으로 사회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한국에 돌아온 그가 처음 시작했던 것은 현재 업드림코리아의 전신인 봉사단체였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전

이 대표는 캄보디아의 NGO단체와 협업하여 현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캄보디아에서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그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지속가능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패션브랜드 ‘D luv’였다. 그는 D luv의 고정적인 수익을 통해 아이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D luv은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디자이너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의류 제작을 진행했다. 이후에는 가방과 같은 패션잡화를 제작하며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모든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니다. 사람들이 처음엔 관심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했지만 재구매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한 번쯤은 좋은 일을 하지만 여러 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사람들이 제품의 질과 저희 회사를 인정해주고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줬을 때 느끼는 보람은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의 진심이 전해진 것일까? D luv은 입소문을 타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D luv의 성공 이후 그는 무형문화재를 돕기 위한 단기 프로젝트인 ‘다이노코리아’를 통해 여권케이스를 출시했고 이 또한 사람들의 큰 호응을 얻어냈다.

아이들을 위한 고민에서 시작된 그의 도전은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이 대표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었다.

여학생이 말해준 문제

그는 최근 생리대 시장에 도전했다. 여성용품 브랜드인 ‘산들산들’을 출시한 것이다. 생리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 대표가 생리대를 출시하다니, 특이했다. 그는 어떤 계기로 여성용품에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

“활동을 하면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지 물어봤습니다. 그때 여학생들이 ‘생리대가 비싸다’는 말을 했죠. 생리대가 왜 비싼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생리대의 제작 및 유통 과정을 찾아봤고 생리대가 원가 대비 높은 금액으로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산들산들을 출시했어요.”

산들산들은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생리대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했다. 한 팩을 구매하면 똑같은 제품 한 팩을 저소득층 여학생에게 기부하는 ‘1+1 기부 구조’도 산들산들만의

특징이다.

“사실 시장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생리대 한 팩을 팔았을 때 한 팩을 기부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큰 리스크입니다. 광고비와 판매비, 높은 유통수수료를 지불할 때면 적자가 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소득층 여학생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제품을 기획했다. 10대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월경혈이 많고 통증이 심하다는 것을 고려해 흡수력과 안정성에 가장 집중했다. 아이들을 위한 그의 노력은 뛰어난 품질로 이어졌다.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성능은 출시 7개월 만에 약 57만 개의 생리대를 기부하는 원동력이 됐다.

한국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 대표는 산들산들을 전 세계에 유통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 델라웨어에 법인 설립을 마쳤고,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서 생리대를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세상의 불평등함을 보고 얻은 이 대표의 깨달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그가 만든 물건에 사람들은 호응했고, 큰 사회적 가치가 창출됐다. 이렇듯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건을 기획하고 만들어진 이 대표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다루는 사회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저희 회사가 없어지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게 회사가 없어지면 저도 좀 쉴 수 있겠죠(웃음).”

최성훈 기자

csh8947@hanmail.net



▲다이노코리아의 여권케이스



▲산들산들의 생리대(좌)와 생리대파우치(우)

2020학년도 제15회 한성인 글쓰기 대회

대회일정

대상 한성대학교 재학생
 목적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 확장 및 글쓰기 능력 향상
 일시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주제 대회 당일 오전 10시
 글쓰기센터 홈페이지(<https://writingcenter.hansung.ac.kr>)를 통해 공지

안내사항

신청기간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오전 9시
 ~ 2020년 5월 25일 월요일 오후 5시
 신청방법 글쓰기센터 홈페이지(<https://writingcenter.hansung.ac.kr>)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작성한 신청서를 이메일(contest4354@hansung.ac.kr)로 발송

상금 및 비교과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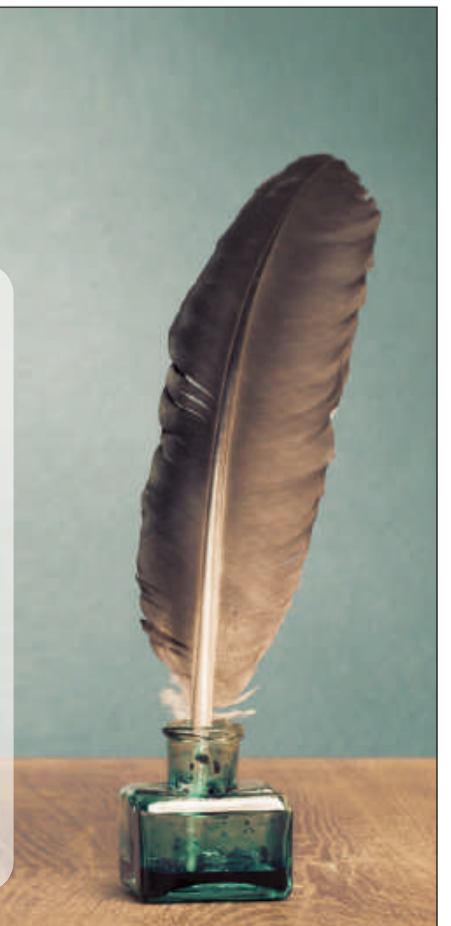
* 수상 결과는 6/18(목) 발표 예정

시상 내역	상금	비교과 포인트
최우수상 (1명)	50만원	60점
우수상 (4명)	20만원	50점
장려상 (5명)	5만원	40점
대회 참여	-	20점

문의

사고와표현교육과정 02-760-4354 | 진리관 104호
 이메일 contest4354@hansung.ac.kr

HSU 한성대학교 사고와표현과정
 HANSUNG UNIVERSITY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시민이 계엄군을 앞에 두고 도청 광장에 운집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진다. 순간 군인이 시민을 향해 실탄을 발사한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고 수많은 시민이 죽고 다친다. 병원도 아수라장이 된다. 사람들이 고통에 몸부림친다. 의사는 사람을 살려 보려 애쓰지만 손을 새 없이 사정한다.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의 한 장면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고통스러웠지만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 없어서 안 될 중요한 사건이었다.

1979년 박정희가 사망한 이후,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12·12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했다.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같은 날 국회봉쇄, 학생·정치인·재야인사 등 2,699명 구금, 정당·정치활동 금지 등의 정치탄압이 자행됐다.

정부의 비정상적 행태에 5월 18-19일 광주 시민은 '비상계엄 해제, 전두환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다. 하지만 계엄군은 시민을 무차별 진압, 연행했다. 19일 최초 사망자가 발생했고, 첫 발표로 조대부고생 김영찬이 부상을 입었다.

19일 시위현장에 있었던 양민승(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무총장(당시 23세)은 오후 3시 40분경 계엄군 4명에게 곤봉으로 구타당했다. 양 사무총장은 "본인은 당시 코카콜라 영업직 보조로 근무했다. 회사 근무복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계엄군이 본인을 학생으로 오인하고 구타했다"며 "학생이 아니라고 해도 신분을 위장하려고 근무복을 입고 다니다며 계속해서 폭행했다"고 증언했다.

20일, 계엄군의 잔인함에 분노한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시위 규모는 더 커졌다. 도서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정해구

저)에선 "그간 계엄군의 잔혹함을 본 시민은 '저항하는 군중'이 아니라 사생결단을 각오한 '성난 민중'으로 변모했다"고 설명한다.

당일 시민은 광주 MBC 건물에 불을 놓았다. 언론이 계엄군의 만행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엄군은 광주 장악을 위해 작전명 '화려한 휴가'를 본격적으로 수행했다. 같은 날 계엄군에 실탄이 지급됐다.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발포하면서 4명의 사망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21일에는 시외전화가 두절됐다. 또한 상기의 이유로 광주 KBS 건물이 방화됐다. 오후 1시, 계엄군은 도청에서 애국가에 맞춰 시민을 향해 집단 발포했다. 계엄군의 만행에 분노한 시민들은 장갑차, 폭발물·총기 등을 탈취·무장했으며 스스로를 시민군이라 칭했다. 그날 계엄군은 도청에서 철수한 뒤 조선대학교로 퇴각했다. 시민군은 계엄군이 철수한 도청을 점령했다.

22일부터 광주 시민들의 시민 자치가 이뤄졌다. 시민들은 수습대책위원회(이하 수습위)를 조직해 질서를 유지했다. 범죄 발생률은 평소보다 낮아졌고, 시내 금은방 및 은행의 금융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정일영(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계엄군이 철수한 뒤 시민은 자발적으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자치'를 실시했다. 비극 속에 빛나는 순간이었다"고 평했다.

수습위는 22일부터 계엄군과 협상을 시작했으나 계엄군은 무조건 무기 반납을 요구했다. 양일간 수습위는 무기 반납을 반대하는 강경파와 무기 반납 후 협상을 하자는 온건파로 갈라졌다. 결국 25일 온건파는 도청을 빠져나갔고 강경파는 무기를 들고 도청에 남기로 했다.

계엄군은 26일 오후 6시까지 무조건 투항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시민군은 최후까지 저항하기로 결심했다. 27일, 계엄군이 전차를 끌고 광주 시내로 재진입했다. 결국 계엄군은 도청을 점령했고, 시민군을 무력 진압·연행했다. 이후 신군부는 모든 사건의 발단이 폭동이라고 조작했다.

5·18 민주화운동 자체는 신군부의 유휴진압으로 끝났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한국 민주화 역사의 한 축으로 작용했다. 최영태(전남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는 "사건 이후, 한국의 민주화 세력은 광주 시민들의 투쟁에 감명 받음과 동시에 강한 부채감을 느꼈다"며 "5·18 민주화운동은 실패했다. 하지만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짐으로써, 5·18 민주화운동도 궁극적으로는 성공한 항쟁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5·18 민주화운동의 책임규명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정 교수는 "공군 전폭기 출격 계획, 시민을 향한 헬기 사격 등 많은 사실이 밝혀졌지만,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제대로 매듭짓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사회적으로 보듬어지지 않았다.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그 속에서 피해자는 또 다른 가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다. 광주 시민이 목숨 걸고 투쟁하지 않았다면 한국 민주화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다. 가해자들은 과연 진정한 반성을 보일 것인가? 언제쯤 오월 영령들을 기릴 날이 올 것인가?

김준수 기자

jseo53493@gmail.com

5·18 민주화운동 타임라인

[1979. 10. 26] 10·26 사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가 사망함.

[1979. 12. 12] 12·12 군사반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군사반란을 일으킴. 이 사건으로 신군부가 군대를 장악함.

[1980. 5. 17]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
17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됨. 국회 봉쇄, 학생·정치인·재야인사 등 2,699명 구금, 정당·정치활동 금지 등이 강행됨.

[1980. 5. 20] 분노한 시민들
언론이 계엄군의 만행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자,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주 MBC 건물을 방화함. 실탄이 계엄군에 지급됐으며 시민을 향해 발포됨. 이로 인해 4명의 사망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1980. 5. 22] 해방광주의 시작
계엄군이 철수한 도청을 시민군이 점령함. 일명 '해방광주'라 불리는 시민 자치 기간이 시작됨.

[1980. 5. 25] 투쟁의 결정
무장 투쟁을 원하는 분파는 도청에 남기로 결정함.

[1980. 5. 27] 5·18 민주화운동의 끝
계엄군이 광주 시내로 재진입함. 시민군은 계엄군에 의해 진압됨.

[1980. 5. 18] 5·18 민주화운동의 시작
광주 시민들이 '비상계엄 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진행함. 계엄군이 이를 유휴진압함.

[1980. 5. 19] 최초 사망자 발생 및 첫 탄사격
최초 사망자가 발생함. 첫 실탄사격으로 고등학생 한 명이 부상을 입음.

[1980. 5. 21] 계엄군의 집단발포와 시민군의 결성
광주 시외전화가 두절됨. 시민들이 광주 KBS 건물을 방화함. 당일 도청에서 계엄군이 애국가에 맞춰 시민을 향해 집단 발포함. 분노한 시민들은 장갑차, 폭발물, 총기 등을 탈취·무장함. 이날 계엄군은 도청에서 철수하고 조선대학교로 향함.

[1980. 5. 23-24] 협상과 분열
수습대책위원회는 계엄군과 협상을 시도함. 계엄군 측은 무조건 무기 반납을 요구함. 위원회는 무기 반납 여부로 분열됨.

[1980. 5. 26] 최후 통첩
시민군에게 6시까지 투항하라는 최후통첩이 보내짐. 시민군은 최후의 저항을 결심함.

최기자의 사담

샘골의 계몽운동가 최용신

심훈의 소설 『상록수』에는 '채영신'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작중 채영신은 참된 지식인으로서 농촌을 위한 끝없는 희생정신을 보여준다. 그런데 채영신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그는 바로 농촌계몽운동가, 최용신(1909~1935)이다.

최용신은 일찍이 교육사업에 종사했던 조부와 아버지의 영향으로 근대교육을 쉽게 접했다. 그는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와 협성여자신학교를 다니며 당대의 지식인으로 성장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1928년에는 『조선일보』에 '교문에서 농촌으로'라는 글을 기고하는 등 농촌계몽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기고문에서 그는 "중등교육을 받은 우리가 화려한 도시생활만 동경하고 안일의 생활만 꿈꾸어야 옳을 것인가? 농촌으로 돌아가 문맹퇴치에 노력해야 옳을 것인가? 거듭 말하노니 우리는 손을 서로 잡고 농촌으로 달려가자"며 농촌계몽운동을 독려했다. 이후 1929년 최용신은 YWCA(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에 가입해

본격적인 농촌계몽운동을 시작했다.

1931년, YWCA의 간부였던 황애덕 선생은 그를 현재 경기도 안산시 봉오동에 해당하는 샘골에 농촌지도원 자격으로 파견했다. 샘골에서의 활동은 쉽지 않았다. 주민들이 냉소와 멸시를 보였기 때문이다. 김형목(선인역 사문화연구소) 연구이사는 "초등교육 보급이 30~40%에 불과한 시점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농민들과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사치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에서 운영하던 강습소를 확대 및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농촌을 위해 농가부업 장려 활동을 하며, 주민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얻게 된다.

이후 그는 더 나은 활동을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갔지만 각기병에 걸려 6개월 만에 귀국하게 된다. 귀국 후 샘골에 돌아온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이전보다 더 활발히 계몽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앞선 데 달린 격으로 YWCA의 지원이 끊기면서 금전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는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1934년 10월 여성잡지 『여론』에 '농촌의 하소연'이라는 글을 기고했지만 사회의 반응은 싸늘했다. 설상가상 과로와 영양부족으로 최용신은 향년 25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김 연구이사는 "최용신은 당대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행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편안함보다 농촌을 생각했기에 그의 삶은 빛이 난다"고 평했다. 도시의 화려한 삶을 버리고 농촌을 위해 자신을 불사른 그의 희생정신은 늘 푸른 상록수처럼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최성훈 기자

csh8947@hanam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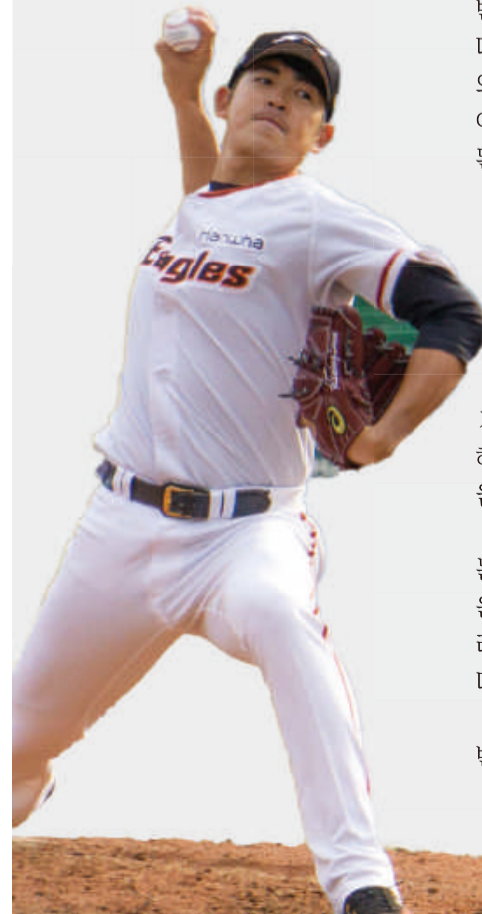
자료 제공 : 최용신 기념관



손끝에서 부리는 마술, 변화구

흔히 야구는 투수놀음이라고 한다. 한 명의 투수가 경기의 향방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투수는 공 하나로 18.44m 너머에 있는 타자를 잡아낸다. 이때 투수를 든든하게 하는 무기가 있으니, 바로 변화구다.

다양한 구종은 '마그누스 효과'에서 탄생한다. 투수가 공을 던지면 공은 유체(공기) 속에서 회전하며 특정 방향으로 운동하게 된다. 이때 이동 방향의 수직



으로 힘을 받아 공의 경로가 휘는 현상을 마그누스 효과라고 부른다.

마그누스 효과 이전에 '베르누이 원리'가 작용한다. 베르누이 원리는 유체가 빠르게 흐르면 압력이 감소하고 느리게 흐르면 압력이 증가한다는 법칙이다. 회전하는 야구공의 뒷부분은 공기가 흐르는 방향과 회전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빨라진다. 반면에 공의 앞부분은 공기가 흐르는 방향과 회전 방향이 반대되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느려진다. 공의 뒷부분은 낮은 압력을 받고 공의 앞부분은 높은 압력을 받게 된다. 위 아래 압력의 차이로 공은 위쪽으로 휘게 된다.

특히 마그누스 효과는 공이 홈 근방에 도달했을 때 두드러진다. 공이 투수의 손을 떠나는 순간, 공의 직진 속도가 회전 속도에 비해 매우 빠르기 때문에 공은 직진한다. 그러나 직진 속도가 작아지는 홈 근방에 가면 속도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회전 속도가 강해진다. 타자는 마치 공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임비오(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는 "마그누스 효과는 타자가 치기 어려운 변화구를 만들기 때문에 투수에게 유리하다"며 "회전수가 많을수록 효과는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백스핀이 걸린 직구, 포크볼 등 다양한 변화구는 마그누스 효과가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공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걸어주는 백스핀은 중력의 영향을 상쇄시켜 공이 덜 가라앉고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도록 한다. 높은 궤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공이 떠오르는 느낌의 착시도 생긴다.

포크볼은 특이하게 상하 방향으로 마그누스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좌우 방향으로 효과가 발생한다. 타자 대부분은 상하 방향으로 변하는 공에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좌우 방향으로 살짝 움직이는 포크볼을 변화구라고 느낀다.

한편 다양한 변화구를 내는 또 다른 주역이 있으니 바로 야구공이다. 야구공에는 108개의 빨간 실밥이 있다. 실밥은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공기의 흐름을 불규칙하게 만든다. 이는 야구공의 후방에 압력을 낮춰 공기의 저항을 줄여들게 하여 공의 속도를 빠르게 한다. 공을 어떻게 잡아서 던지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실밥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마그누스 효과도 다르게 작용한다.

연구됐던 2020 프로야구가 개막하면서 많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됐다. 야구의 가장 큰 재미는 투수와 타자의 대결이라고 말한다. 공의 회전과 공기 흐름 속에서 펼쳐지는 이들의 대결은 긴장감을 선사할 것이다.

박희연 기자

heeeyun96@naver.com

· 삼 학 송 ·

스러져 간 그들을 위해

착하고, 성실하고, 하고픈 것 많은 스물넷의 청년은 2018년 12월, 끝내 그 뜻을 못 다 피우고 스러졌다.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떠난 그의 이름을 딴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4달.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김용균'을 위한 자리가 없다.

사고 위험이 높은 일을 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은 개정 전 '고용주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허점을 가지고 있었다. 원청업체는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 위험을 외주화했고, 노동자의 처우와 근무환경은 물 보듯 뻘했다.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매뉴얼은 만성적 인력 부족을 근거로 지켜지지 않았고, 노동자에게는 사고 위험도가 높은 업무가 주어졌다.

개정된 법안에서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일정 기간에 끝내야 할 일을 도거리로 맡거나 맡김)을 제한하고, 도입인의 산업재해(이하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확대시켰다. 또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시켰다.

하지만 지난달 발생한 이전 물류창고 화재사고에서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정확히 12년 전, 이곳 이전의 한 병동창고에서도 화재사고가 발생해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12년이 흘렀지만 죽음의 양상은 변하지 않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노동자 사망사고'를 검색해보자. 당장 오늘, 어제, 그제, 지난주에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한국 산재사고의 민낯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김용균법은 시행되기

전부터 여전히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발전소 시설관리 등 위험작업은 여전히 도입이 가능했다. 건설기계 장비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 조항에는 굴착기·크레인·덤프트럭 등 사고 다발 위험이 높은 장비가 제외됐다. 또한 원청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하한선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적용에서 제외됐다. 위험이 외주화 될 가능성이 아직 다분하다.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의 기반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 그리고 열악한 처우다. 정규직 전환은 힘들고 받아줄 곳도 많지 않으니, 힘겨운 환경에서도 그저 열심히 일한다. 언젠가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일터로 몸을 이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한 해 1,000명의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올해는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작년보다 15.2% 적은 725명 이하로 대폭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가는 편익 계산 없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주체다.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를 위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우리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악재 속에서 이들의 죽음을 묵시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의 안타까운 죽음이 다른 정보에 묻혀, 세상에 알려지지 못한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한다. 먼저 스러져 간 그들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장선아 편집국장



철거를 기다리는 삼선제5구역, 군대군데 쓰레기가 쌓여있다. 삼선제5구역을 떠난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다. 길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만 곳곳에 쌓여있는 쓰레기가 미관을 해친다. 지난 2월 본고는 성북구청과 삼선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쓰레기 처리 문제를 건의했다. 하지만 쓰레기는 그대로 남아있다. 최성훈 기자

기자수첩

언제나 계속되는 2분의 증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는 가상의 국가 오세아니아와, 당국의 반역자이자 반동 세력 형제단의 수장인 '골드스타인'이 등장한다. 오세아니아의 외부당원은 골드스타인을 향해 증오를 보내는 집회, '2분의 증오'에 반강제로 참가해야 한다. 집회에서 당원들은 골드스타인의 모습을 향해 욕설과 화를 퍼붓는다.

하지만 누구도 골드스타인과 직접 만났 적이 없다. 주인공이 모종의 일을 계기로 형제단과 접촉을 시도하지만 형제단 또한 실존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골드스타인과 형제단은 허상이자 당국의 함정이다. 집회는 내부 결속을 위해 인위적으로 적을 만들고, 이들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를 생성한다.

지금 세상은 증오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것을 트집 잡고 시비를 걸거나 성별, 연령, 인종, 학력 등으로 사람을 가르고 증오를 심는다. 인터넷에선 과격한 주장을 퍼뜨리고 선동한다. 증오와 차별적인 발언이 인터넷의 일부가 된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한다. 2분의 증오와는 다르게 현실의 증오는 언제나 계속된다. 서로가 증오를 교환한다. 듣는 사람은 또 다른 증오와 차별적인 발언으로 응수한다.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다.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다양한 증오 발언을 목격했다. 어느 당 의원들은 5·18 민주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모욕했고,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다. 지지자들의 결속을 위해서 말이다. 그들의 잘못된 이야기 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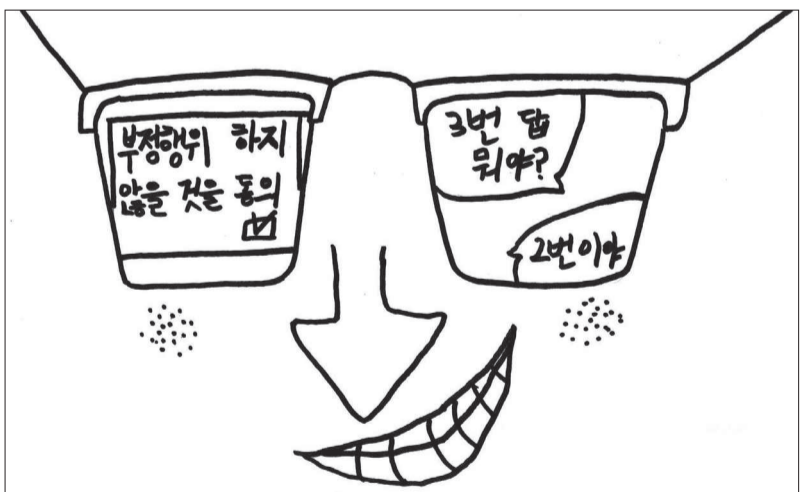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시민들은 골드스타인과 형제단으로 변한다.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조작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고 대중에 퍼뜨린다. 5·18 민주화운동에서 가족을 잃은 이의 슬픔이 더욱 깊어질 따름이다.

내부의 결속을 위해 적을 만든다. 2분의 증오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과격한 주장을 서슴없이 내뿜는다. 그 주장 중 일부는 현실에 떠돈다. 아무 의미 없는 분노를 위해 힘을 쏟는다. 지켜보면 매우 우습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하루빨리 이 분노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우리는 언제쯤 마음속 골드스타인을 버릴 수 있을까?

김준수 기자

낙산만평

이민경 기자



온라인 중간고사 빌런

"나 한 달 무급 휴직이야"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였다. 대학 졸업 후 취직한 지 6개월 넘는 친구였다. 그는 권고사직과 무급 휴직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그의 회사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큰 피해를 받은 곳 중 하나였다.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매출이 급격하게 줄면서, 수익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줄여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졌다. 기업은 임금을 줄이거나 고용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청년에게 전달됐다. 기자는 취재를 진행하며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청년의 체감 실업률은 2015년 이후 최악의 상태였다.

안개 속의 청년들

청년 경제가 바이러스 확산에 큰 타격을 입은 데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상황이 배경에 깔려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 보조금 지원 등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생각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4대 보험이 적용되고, 청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일자리의 수는 계속 줄었다.

좋은 일자리의 수가 증가하지 못한 가운데 코로나19가 찾아오면서 이제는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 일자리조차 귀해지고 있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모집한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의 경쟁률은 27대 1에 달했다. 돈이 급한 청년이 고수익 알바라는 홍보에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에 걸려드는 일도 증가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청년은 의욕을 잃었다. 구직을 포기한 청년이 42만 6천 명을 넘어가고 있다.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청년은 많지만 코로나19와 정부의 유명무실한 정책은 청년을 울리고 있다. 취재 중 한 교수는 정부의 정책이 너무 단기적이라며 비판했다. 정리하고 문제, 비정규직제용 문제 등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직도 쌓여있다.

코로나19라는 안개가 짙게 깔린 가운데 청년은 도무지 잡히지 않는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안개가 걷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청년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박희연 기자

비대면은 진보인가?

한산한 거리와 마스크를 쓴 사람들. 사회적 거리가 생활적 거리로 좁혀졌지만, 이들 사이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 느낄 수 없었던 무형의 공간이 발생했다.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에 반대를 뜻하는 점두사인 언(Un)을 붙인 신조어, 언택트(Untact). 코로나19와 함께 발생한 이 단어는 미래에 대한 질문의 단초가 된다.

코로나19가 만든 무형의 공간은 사람들 간 거리를 물리적으로 차단했다. 그 속에서 기술진보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더욱 발전한 통신 기술과 디지털 기술은 사람 간 거리의 제약을 허물고 동시에 우리에게 더욱 편리한 생활을 가져다줬다. 그런데 과연 기

술적 진보를 통한 비대면 접촉이 인간에게 유용하기만 한 것일까?

확산되는 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 접촉이 지속되자, 사람들은 점차 대면으로 만날 기회를 잃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팬데믹(세계적 유행)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마음 놓고 누군가를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했다. 인간은 이 사회에서 개별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는 비대면으로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한계가 있다. 기술이 사람 간 거리를 좁혀줄 수 있더라

도,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심리적 거리는 완벽히 채울 수 없다. 만남을 통해 사람들의 관계가 시작되고, 나아가 정서가 공유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사회에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었다.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될수록 더 편리한 생활을 얻었지만, 비대면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초래됐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술은 더욱 진보할 것이다. 우리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임을 잊지 말며, 기술의 과잉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관계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현경 기자

기자사령

임 정기자 김준수(사회과학 1)

〈한성대신문〉은 교수님의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면에 실을 동정이 있으면 한성대신문사(내선 4186)로 문의바랍니다.

의화정

컴퓨터 공학을 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어린 시절 사촌 형 집에 있는 컴퓨터로 고인돌 게임을 접하면서 컴퓨터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교수가 돼 있지만 어린 시절, 프로그래밍이기에 가까울 정도로 컴퓨터 프로그래밍보다는 컴퓨터 게임에 몰두했다.

스티브잡스가 스탠퍼드대학교 졸업 축하 연설에서 “과거에 무의미해 보였던 자신의 경험들이 모여 미래에는 하나의 의미있는 결과물로 도출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컴퓨터 게임에 몰두했던 시간은 컴퓨터 공학자가 갖춰야 할 자질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컴퓨터 게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게임을 컴퓨터에 설치해야 한다. 이때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여유 공간을 확인해야 한다. 컴퓨터

게임 실행 시 최소 사양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컴퓨터의 RAM, CPU, 그리고 GPU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게임을 실행할 수 있다. 게임을 설치하면서 컴퓨터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

3차원 게임은 매우 높은 GPU 사양이 필요하다. 만약 자신의 GPU 사양이 높지 않다면 그래픽 설정을 조작해 최적의 프레임을 찾는다. 컴퓨터 그래픽스와 관련된 부분이다.

최신 게임은 온라인 대전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서 유/무선 인터넷을 연결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TCP/IP 프로토콜, 도메인 설정, 그리고 라우터 설정까지 직접 해주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컴퓨터 네트워크를 알 수 있다.

접속이 완료되면 신분 확인을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컴퓨터 보안이 적용된 부분이다. 최신 게임은 일회용 비밀번호까지 이용해서 안전한 이중 인증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게임 방식은 경쟁전이며 상대방보다 나은 전략을 매번 제시한 경우에만 승리할 수 있다. 일정한 조건에서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통해 효율적인 연산 수행을 고민하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유사하다.

하나의 컴퓨터 게임 속에는 컴퓨터 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숨어있다. 만약 컴퓨터 공학을 잘하고 싶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학생이 있다면, 엉뚱하지만 컴퓨터 공학에 앞서 오버워치를 풀 옵션으로 플레이해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서화정(IT융합공학부) 교수

코로나19 속 모순의 세계

코로나19가 인류를 위협한지도 5개월째. 위기 속에서 드러난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하다.

세계 전역의 '봉쇄(lockdown)', '폐쇄(shutdown)'의 물결은 바이러스의 확산속도를 늦출 수 있었지만, 그만큼 경제 침체가 빨라졌다.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많은 사람이 생계에 타격을 입었지만, 덕분에 깨끗해진 대기질은 환경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선진'국이라 불리며 앞서 나갔던 나라들이 Emerging 또는 Developing으로 불리는 한국의 체계를 본받는 데 한창이다. 대학 교육 역시 온라인 강사와 소통을 통해 빠르고 성숙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교육과의 차별성, 동질성 등 풀어야 할 문제 역시 커지고 있다.

경제는 디스플레이선과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극단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중이다.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지만, 금, 코인 등의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미국 등 각국 정부가 '헬리콥터 살포'라고 할 정도로 화폐를 찍어내고 있지만, 경제가 돌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소용없다.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면 '화폐승수'라 불리는 돈의 회전속도가 줄어들어 신용의 규모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IT, 통신, 모바일 강국인 한국은 경제에서도 모범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공공이 배려하고 흡수하면서 교육, 쇼핑, 식사, 엔터테인먼트 등 대부분의 필수 활동이 '집콕' 또는 '언택트'로 가능해졌다.

모순의 시대에도 분명한 건 있다. 치료제, 백신, 집단면역, 바이러스 자체의 변이 등 어떠한 식이든 코로나 자체의 위기는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해결책 중 가장 오래 걸리는 백신 역시 늦어도 내년이면 개발될 것이다.

세계 무역의 위축은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의 위기다. 하지만 투명성, 민주성, 신뢰성이라는 국제적 평판은 제조업이 강한 한국경제의 호기다. 전세계에서 가장 짜임새 있는 제조업 기반을 가진 한국이 중국과의 격차를 넓히고,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위기 이후에도 민간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공공이 잘 흡수할 수 있다면 말이다.

김동하(융합교육과정) 교수

낙산에 올라

코로나19와 세계화의 불안 요소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세계화'라는 단어를 기억하는가? 많은 사람이 부르짖었던 그 세계화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등장과 팬데믹 선언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바이러스의 창궐은 세계화의 방향성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그간 우리 주변에 숨어있던 세계화의 불안 요소를 터뜨리는 기폭제가 됐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터져 나왔을 요소가 코로나 덕분에 더욱 빨리 빛을 보게 된 셈이다.

세계화의 이면에 숨어있던 불안 요소는 무엇인가? 그 답은 분노와 증오다. 물론 분노와 증오는 오랜 시간 인류와 함께 해왔다. 누군가는 자신에게 이득을 가져줄 도구로, 누군가는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도구로 분노와 증오를 사용해왔다. 물론 코로나19가 분노와 증오를 만들어 냈다는 표현에는 어폐가 있을 것이다. 다만, 분노와 증오를 거둬김 없이 드러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줬다.

분노와 증오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쉽게 떠오르는 곳은 정치권이다. 정치의 세계는 이미 분노와 증오가 만연한 세계다. 정치 집단은 편을 가르고 격렬하게 상대방에 대한 증오를 내비친다. 코로나19 이후 국제적으로 퍼진 동양인 혐오 역시 대표적인 예다. 동양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인 혐오가 나타났다. 대중은 그들이 바이러스를 옮기고 다녔다며 분노와 증오를 담아 적대시했다.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른

집단을 적대시하는 사례는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에서도 나타난다.

다시 세계화로 돌아오자. 왜 우리는 어린 시절, '세계화'의 중요성을 가르침 받았을까? 세계화라는 개념을 통해 화합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했으리라 생각한다. 분노와 증오는 누군가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그 이익은 단기적이며, 소수에 국한된다.

분노와 증오가 팽배해진 사회는 황무지나 마찬가지다. 화합은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화합한다면 나와 다른 존재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분노와 증오가 번져가는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가치는, 분명 '함께일 거라 믿는다.'

이상준(인문 3)

똥똥녀의 눈물

똥똥한 개그맨이 무대에 오른다. 그는 똥똥한 외모에 대한 사회의 선입견을 개그의 소재로 삼는다. 똥똥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개그맨은 대부분 못생겼다는 평판을 듣고, 먹을 것을 받으며, 괴팍한 성격을 갖고 있다. 관객은 각색된 무대를 보며 웃는다.

똥똥한 외모에 대한 선입견은 살찐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성에 기인한다. 유튜브 쓰양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먹는 만큼 살이 찌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일반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똥똥한 사람이 많이 먹을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똥똥한 외모에서 비롯된 선입견이 먹는 양뿐만 아니라 개인의 다른 요소들까지 규정한다는

점이다. 외모가 바뀌니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졌다는 경험담을 들 어봤을 것이다. 물론 외모는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을 좌우하는 요소다. 외모라는 영역에서 똥똥한 사람은 불리하다. 이미 사회 저변에 스며든 편견과 선입견이 그들의 첫인상을 알아매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드라마 <모래시계>를 비판했다. 작중 강패들은 전부 전라도 사람이라는 이유였다. 할리우드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주인공은 백인, 악당이나 강패는 흑인이 담당했다. 코미디 프로그램 역시 똥똥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만들어 밖에 내놓는다.

자신의 똥똥한 외모를 그렇게 밖에 활용 못하는 개그맨, 그것을

소재로 무대를 꾸미는 동료, 그들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방송 관계자, 그들에게 광고를 주는 기업, 그리고 그들의 개그를 보고 웃는 우리. 모두 선입견을 소비하는 사회의 단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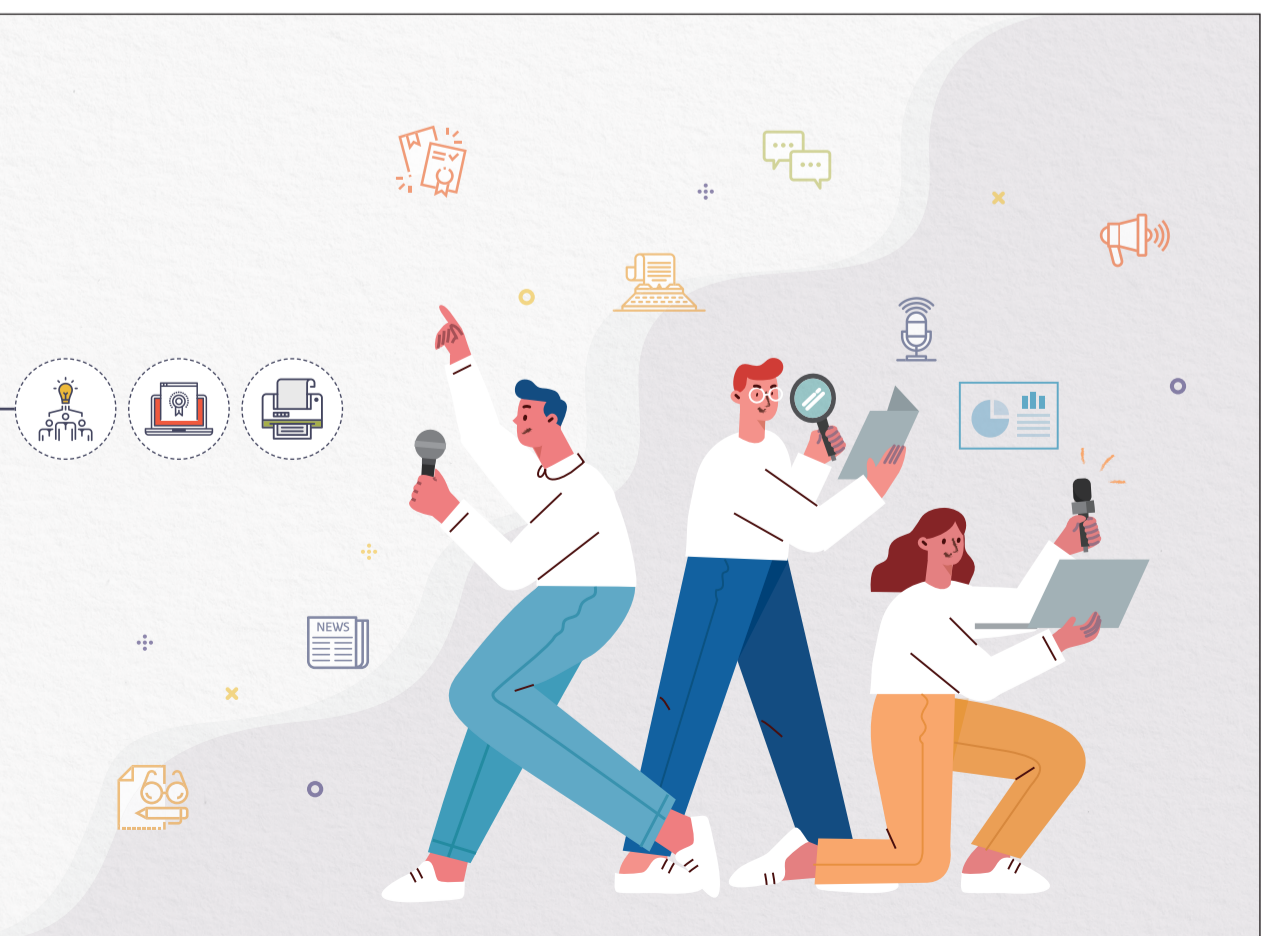
북면가왕에서 음악대장 하현우는 개그우먼 신봉선에게 "소녀 같은 감성이 있다, 아름다운 여성분"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신봉선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그녀의 외모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에서 비롯됐다. 똥똥한 개그맨을 보며 웃었던 우리는, 눈물을 흘린 신봉선에게, 똥똥한 외모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모든 똥똥녀에게 책임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박한석(CT 1)

제보, 칼럼 모집

<한성대신문>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칼럼을 받고 있습니다.

- 문의
- Tel. 02)760-4186
- E-mail. hansungnews@gmail.com



코로나19 등장에, 온라인 게임도 두둥등장!



사진 출처: 넥슨 게임

▲자유로운 게임 시스템이 특징인 '모여봐요 동물의 숲'의 표지다.



사진 출처: 유튜버 채널 'Marshall'

▲'포트나이트' 유저들이 거대한 트래비스 스캇의 콘서트를 즐기고 있다.

온라인 게임은 여타 놀이와는 다른 매력 을 갖고 있다. 문을 열고 다른 세계로 넘어 간다거나,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마법을 쓰는 등 온라인 게임에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시공을 초월하는 게임 속 공간은 코로나19 속 새다른 일상으로 거듭났다.

지난 9월, 용산의 한 쇼핑몰에는 사람들이 의 기나긴 행렬이 이어졌다. 닌텐도에서 출시한 '모여봐요 동물의 숲' 게임을 사려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동물의 숲 주민이 된 플레이어는 돈을 모아 마을을 자유롭게 꾸밀 수 있다. 게임 속 마을은 손발이 묶인 현실과 달리, 자유롭게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하나의 세계다. 이장주(이락디지탈문화연구소) 소장은 "온라인 게임은 일상생활의 결핍을 채워주는 콘텐츠다. 누구나 현실 같은 그래픽에서 소통할 수 있는 점이 인기의 요인"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게임은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한다. 지난 5월 5일, 청와대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온라인 간식 게임인 '마인크래프트'에 가상 점와대를 구축해 어린이들을 초청했다. 초청 영상에서 게임 캐릭터로 변신한 대령은 모니터 너머로 어린이들에게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모여봐요 동물의 숲' 역시 다른 플레이어를 마을에 초대해 만남을

이처럼 온라인 게임은 플레이어가 무엇 이든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스템을 가지며, 소통의 빈자리를 메우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다른 문화 콘텐츠와 융합 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속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 소장은 "온라인 게임은 플레이어가 직접 주인공이 돼 여러 시련과 출길 수 있다는 것에 최적화돼 있다. 앞으로 온라인 게임을 생활 속 중요한 문화로 받아들이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게임의 발전을 전망했다.

<편집자주>

친구들과의 만남, 배낭 하나 메고 떠나는 여행, 운동장에서 축구 한 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평범한 일상들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이하 코로나19)가 빼앗았다.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를 듣는 모습은 익숙한 일상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그 속에서 '온라인 게임'은 무로한 우리의 일상을 달래주고 있다.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언택트(untact)' 생활 속에서 온라인 게임으로 그리운 일상을 채우기 시작했다. 모니터 안의 가상세계를 넘어 연대감과 소통까지, 우리네 일상 속에 스며든 온라인 게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모여봐요, 온라인 게임 속에서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각종 스포츠가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등 인기 스포츠 리그는 연기됐고, 국내 배구 리그와 프랑스 축구 리그는 조기 종료됐다. 일부 스포츠 리그가 점차 재개되고 있지만 선수들 직접 볼 수 없는 탓에 예전과 같은 현장감을 느끼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게임의 단비 같은 리그가 있으니, 바로 'e스포츠 리그'다.

e스포츠는 온라인 게임으로 승부를 겨루는 경기다. 적절한 기기와 네트워크만 있다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경기를 즐길 수 있다.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롤챔스)'는 2018년부터 결승전을 제외한 경기를 '롤파크'라는 전용구장에서 진행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개막일을 늦추는 대신 전년 무관중 경기로 진행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스포츠에 무관심한 팬들을 위해 높은 유연성과 신속성을 보였다. 3주가 채 안 된 시간에 대회 방식을 바꿔, 각 팀 숙소에서 경기를 진행한 것이다. 그 결과 롤챔스 평균 시청자 수는 전 시즌 대비 11만 명 이상 증가했다. 다시금 무관중으로 진행된 결승전 최고 시청자 수는 약 282만 명이었다. 돌 다 역대 최고기록이었다.

코로나19라는 어둠에서도 e스포츠는 밝게 빛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뉴즈는 2020년 e스포츠 산업의 시장 규모가 올해 말까지 전년 대비 106%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최 교수는 "지금은 10~20대가 이끌어 가는 e스포츠 문화는 e스포츠 세대와 스포츠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젠 온라인으로 승부한다



사진 출처: 유튜버 채널 'T1'

▲한국의 e스포츠를 대표하는 'Faker' 이상혁 선수가 속소에서 온라인 경기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라이엇 게임즈

▲롤챔스 결승전에서 우승한 T1의 선수들이 다 함께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있다.

